휴전 소식에 금값 반등…'안전 자산' 회복세 이어지나

중동사태 후 10% 하락…유가 급등·달러 강세 영향
전쟁 긴장 완화 속 반등 "고점 대비 회복은 제한적"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금 가격이 올해 들어 조정을 거친 가운데 최근 중동발 휴전 기대감에 국제 금값이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으로 약 10% 가까이 급락하는 이례적 흐름을 보였던 금이 '안전자산의 왕'으로 명예회복을 할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14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순금(24K, 3.75g)은 살 때 기준 전일 대비 0.10%(1000원) 상승한 99만3000원을 기록했다. 팔 때 가격은 83만원으로 전일 대비 0.12%(1000원) 상승하며 보합권 속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18K 금 시세는 제품 시세 적용 기준 팔 때 61만100원으로 전일 대비 0.11%(700원) 상승했으며, 14K 금 시세 역시 47만 3100원으로 0.11%(500원) 오르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국제 금값은 올해 들어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 강세를 이어왔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면서 금값은 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와 맞물려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본격화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중동 긴장 고조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확산되자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로 이어졌다.

유가 상승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미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가 겹치면서 금값은 오히려 조정을 받았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지만,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이라는 한계가 있다. 금리가 높아질수록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일 경우 투자 수요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이 현금 확보에 나서는 과정에서 금을 먼저 매도하는 유동성 압박까지 겹쳤다. 최근 1년간 이어진 금값 급등에 따른 부담도 하락세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근 들어 분위기는 다소 달라지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휴전 기대가 커지고 중동 긴장이 일부 완화되면서 국제유가 급등세가 진정됐고, 이에 따라 금값도 급락분 일부를 만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유가가 안정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고, 향후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금값에는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광주 지역 금은방가에서도 최근 금값 변동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동구 귀금속전문도매상가에서 금은방을 운영 중인 최모씨(52)는 "전쟁 이슈가 커졌을 때는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보고 매수를 문의하는 고객이 많았는데, 최근 조정 이후에는 '지금이 저가 매수 시점이냐'를 묻는 문의가 늘었다"며 "단기적으로는 반등했지만 국제 시세가 워낙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어 투자 목적이라면 당장 추격 매수보다는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은 장기적으로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지만, 최근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국제 정세보다 미국 금리와 환율 흐름을 함께 봐야 한다"며 "단기 급등락에 흔들리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귀금속 업계는 실물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혼수·예물 수요는 계절적으로 꾸준한 편이지만 최근에는 투자 목적의 골드바나 순금 제품 문의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반등을 추세 전환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휴전 기대가 실제로 이어질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중동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다시 반등하거나 미국의 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금값은 다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세계금협회(WGC)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번 금값 하락의 주요 원인을 금리나 인플레이션이 아닌 현금 확보 수요로 진단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을 매도했다는 분석이다. 중장기적인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유가와 유동성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정부 규제 합리화 노력 만족"
한국경총, 기업규제 전망 조사

국내 기업 10곳 중 6곳가량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517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를 한 결과 이들 중 63.8%가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14일 밝혔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은 23.4%였다.

규제혁신 컨트롤 타워인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뀌면서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됐고, 부위원장 3인 위촉과 전체 위원 수 확대(25명→50명 이하) 등을 통해 정부가 규제개선 의지를 보인 점이 긍정적 평가를 끌어낸 것으로 경총은 해석했다.

현행 규제 중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비롯한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49.9%)로 나타났다.

이어 '근로시간 규제'가 25%, '탄소중립 등 환경 규제'가 15.5% 순이었다.

올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은 '공무원의 적극 행정 면책 강화'(23.8%),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22.2%), '의원 입법안 규제 영향분석제 도입'(18.1%) 등으로 나왔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모델이 KT에서 국내 최초로 출시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제휴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KT

KT,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제휴 요금제 출시
국내 첫…월 5만원에 데이터 완전 무제한·구독 혜택 제공

KT가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YouTube Premium Lite)'를 제공하는 요금제 번들 상품을 출시한다.

14일 KT에 따르면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초이스' 요금제의 기본 혜택을 프리미엄 라이트로 개편한 것으로, 추가 요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상품은 지난달 국내에 정식 출시된 상품으로, 월 8500원에 광고 없이 유튜브 주요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유튜브 뮤직은 제외되며,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음악 콘텐츠나 쇼츠 이용 시 오프라인 저장과 백그라운드 재생이 제한되고 광고가 표시될 수 있다.

해당 요금제를 선택하고 선택약정 할인(25%)과 프리미엄 가족결합 할인(25%)을 적용할 경우 월 5만원대에 데이터 완전 무제한 등 관련 혜택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유튜브 뮤직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추가 비용을 통해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KT는 요금제 혜택과 함께 'KT 구독'에서도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시중가(월 8500원)보다 할인된 월 8000원에 제공해 가격 경쟁력을 강화했다. 또, 유튜브 이용 경험과 일상 혜택을 결합한 구독팩 2종도 함께 출시한다. 김은지 기자 eunzy@

구직 단념 청년들, 다시 일터로 이끈다
광주경총-나주시, 청년도전지원사업 본격 가동
78명 맞춤지원…심리회복-취업 연계 프로 운영

광주지역 경제계가 구직 의욕이 저하된 청년층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에 본격 나섰다.

14일 광주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광주경총은 올해 나주시와 '청년도전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직단념청년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회복과 직업 역량 강화를 지원해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는 총 78명을 대상으로 단기·중기·장기 과정으로 나눠 개인별 상황과 취업 준비도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프로그램은 자신감 회복 및 동기부여, 심리상담 및 정서 지원, 직무 탐색 및 취업역량 강화, 현직자 멘토링 및 취업 연계 등 단계별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단기 과정은 구직 의욕 회복에, 중기 과정은 직무 탐색과 역량 강화에, 장기 과정은 심층 상담과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설계됐다.

나주시 특성을 반영한 연계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일자리박람회 및 채용행사 참여, 지역 산업·기업 탐방, 축제 및 공공행사 참여, 청년센터·고용센터 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경험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경총은 단순 교육을 넘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해 지역 인력 미스매치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구직단념 청년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심리적 회복부터 취업 연계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지역 기업과 협력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경총은 올해 지역 청년 취업 지원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관련 사업 예산이 전년보다 약 43억원 늘어난 119억원 규모로 확대되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송대웅 기자 sdw0918@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공시
제 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4고합2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 김제택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6년 4월 9일
판사 장우석

http://in-point.kr
1%부족함 까지도 디자인 하다.
Design Specialist & Creative Think
디에스&시티

Design Specialist & Creative Think
실내인테리어 디자인 · 설계 | 실내 건축 공사업 | 3D 영상 · 모델링 / 조감도
옥 · 내외 사인물 디자인 / 설계 | 경관 디자인 / 설계 | 산업디자인
(주)디에스시티 |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53 (신안동, 2층)
디에스앤시티(주)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신흥로 1-1
대표전화 | 062.433.8800

kidp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나의 소통코스
종합광고솔루션 - 나코스(유)
www.nacos.co.kr NAVER 나코스 검색

● 1004섬 신안 신의도 찰나를 담다!

YouTube
★구글아이디가 있으셔야 구독하실수 있습니다
광남일보iTV
구독 · 좋아요 · 알림 설정까지!!
광남일보 iTV 프로그램

● 호국화 차茶의 성지, 전남 두륜산 대흥사

● 나주지역 포교의 중심도량 덕룡산 불회사
광고 · 시청문의 062)370-7077